

POLICY BRIEF 2022

2022. 03. 24. vol.54

2022 정책브리프

※ 이 자료는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www.jthink.kr

연구진 | 김동영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권이선 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원

POLICY BRIEF 2022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22. 03. 24. vol.54

CONTENTS

1. 연구배경과 목적
2. 코로나19이후 전라북도 문화예술활동의 피해와 변화상
3. 코로나19 시대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대응 현황
4.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수요조사를 위한 FGI 결과
5.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방향
6.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주요과제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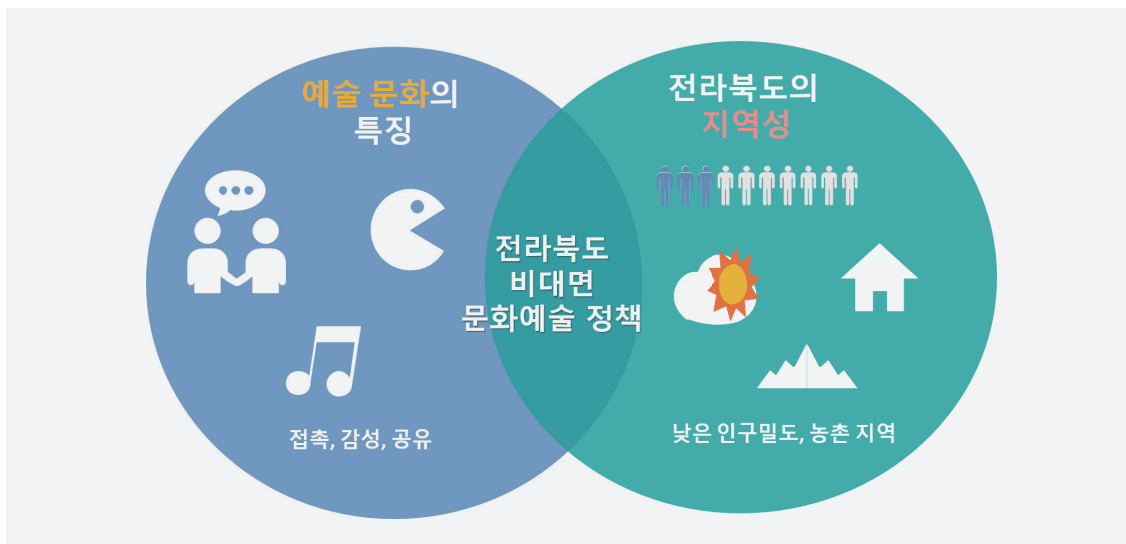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연구배경과 목적

- ✔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문화가 대두되기에 앞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이 각광받음.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banking, 배달, 드라이브스루 등 언택트 소비가 가속화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공연과 행사 등 온택트(Ontact) 문화가 확대됨
- ✔ 미래 불확실성,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술적 흐름을 고려 하여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 마련이 시급함
-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기술과 지역의 문화 예술 여건을 분석하여 전라북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지원이 필요함
- ✔ 대면 위주의 생활기반 및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방과 농촌지역이 다수인 전라북도의 경우 비대면 관련 기술과 콘텐츠 취약으로 인해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단절되는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마이크로 컨택트 프로그램이 필요함
-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파생된 쇼크는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진행형임에도 이런 사태에 대해 문화예술 가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정책은 부족함
- ✔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은 대면 접촉을 통해 감성을 공유하는 예술문화의 고유적 특징과 전라북도 지역성을 반영한 전라북도만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1> 코로나19시대 전북 문화예술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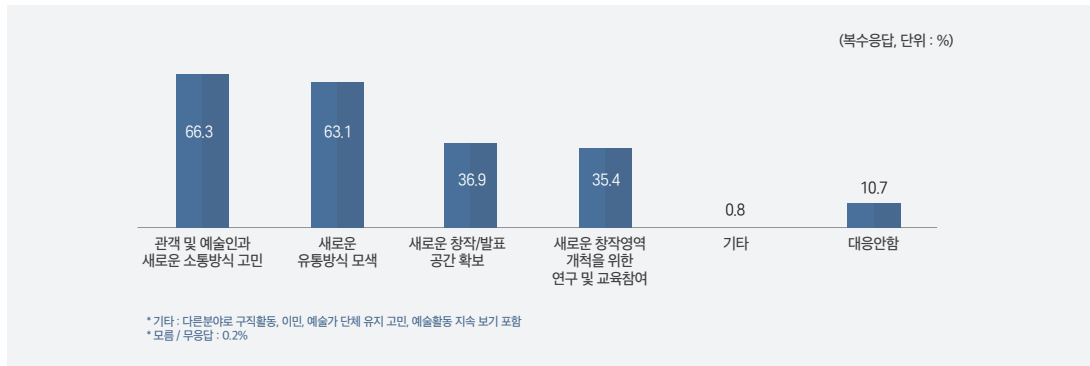


2. 코로나19이후 전라북도 문화예술활동의 피해와 변화상

- 『코로나19 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에 의하면 코로나 19이후 문화예술인들은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불안’을 78.8%,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이전과 같은 창작활동을 하지 못할 것’에 66.6%, ‘장기화 결과 창작활동 관련 네트워크가 와해될 것 같다’에 54%가 응답함

- 예술활동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많은 이들은 ‘새로운 소통방식에 고민(66.3%)’이라고 답했음. 차순위로 63.1%가 ‘새로운 유통방식 모색’, 36.9%는 ‘새로운 창작/발표 공간 확보’, 35.4%는 ‘새로운 창작영역 개척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참여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응답함

<그림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 대응 방안 응답



- 공통적으로 예술활동의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은 “새로운 소통, 유통, 창작 공간”에 주목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창작활동과 시연의 불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 필요성 느끼고 있음

-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각종 전시와 행사 등 전반적으로 대면을 통한 문화예술 행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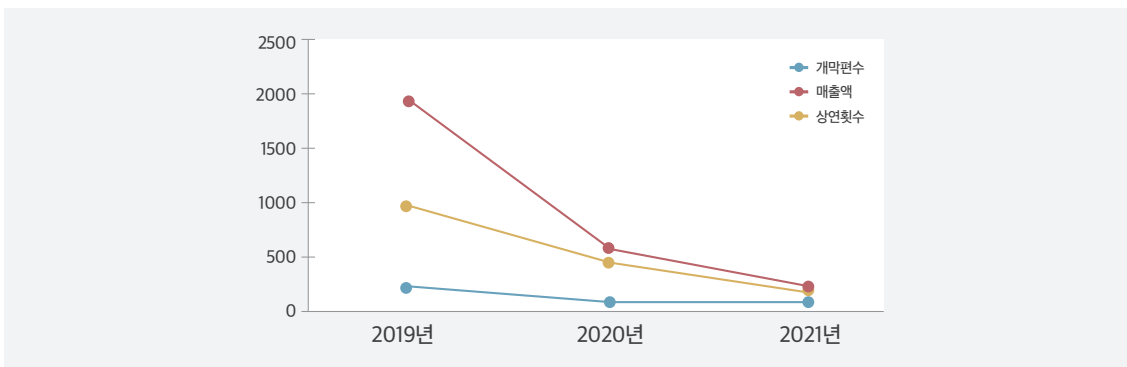
- 공예는 수업과 전시 20건 취소, 판매와 체험취소로 수입 감소 23건, 음악은 수업과 연주 51건 취소 공연 및 행사 11건 취소, 미술은 강의와 전시 23건과 행사 13건 취소, 연극은 강의와 공연 18건, 행사4건이 취소됨

- 음악, 연극처럼 다수의 인원이 어울러 연습 및 리허설이 필요한 분야는 직접적인 공연 취소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에 따라 단체연습, 연습공간에 차질이 생김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작품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대폭 위축됨. 이로인해 예술가들은 어려운 생계 보장과 구축되지 못한 사회적 보호망으로 인해 심적 불안을 겪음. 이는 곧 전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전라북도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 당해 연도, 그리고 직후 공연시설장에서 개최된 개막편수, 상연횟수, 매출액을 비교하면 모두 급격히 줄어들음
 - 코로나 발생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개막편수가 56.4%, 상연횟수 51.2%, 매출액 69.4%가 감소함
- ✔ 코로나 시국에 클래식, 뮤지컬, 복합공연 장르는 개막편수와 상연횟수가 급격히 줄면서 전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격감하였음
 - 2020년 코로나 확산 속에서 모든 공연시설의 개막편수가 줄어들었으나 그 중 클래식(69.1%), 복합공연(64.7%), 뮤지컬(58.3%)이 눈에 띄게 감소. 오페라는 전년대비 16.6%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가장 완만함
 - 상연횟수는 복합공연(72%), 클래식(69.5%), 뮤지컬(68.5%) 순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공연되지 못하였으며 연극(34.6%), 오페라(33.3%), 국악(20%), 무용(15.7%) 순으로 비교적 4개 부문에서는 상연횟수 줄어드는 폭이 크지 않음
 - 개막편수와 상연횟수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클래식, 뮤지컬, 복합공연 부문에서 타격이 가장 큼. 3개 장르는 개막이 되지 못하거나 실연 되더라도 공연 횟수가 극명히 줄어들어 원천적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크게 감소함

<그림3> 2019~2021년도 전라북도 개막편수·상연횟수·매출액 증감 현황



자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2021.7.12.자료

- ✔ 2021년 상반기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되던 코로나19 여파가 7월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하반기 각종 공연의 개막과 상연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 ✔ 백신 접종률이 78%에 달하자 2021년 11월로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나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연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위드 코로나 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 코로나19 시대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대응 현황

-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라북도 문화예술가들은 축제,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행사 축소, 유튜브, 오디오북 등을 통한 온라인전환, 마이크로 컨택트 방식의 소규모 문화예술사업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버리협의회 2021 참조)
- ✔ 2020~2021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정책이 단기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관객과의 만남과 예술 활동이 줄어듦.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긴급 구호, 실업보험과 같은 문화예술가의 경제 및 복지 차원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짐
- ✔ 예술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법안 발의 같은 제도적 기반은 형성이 된 편이나 본질적으로 예술가들의 활동공간 및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부분에서는 지원이 저조하였음
- ✔ 특히 각 예술별 특성과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한채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 같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행해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광역 문화재단에서도 자체 홈페이지, 유튜브, VR과 AR, 전자책 등의 방식으로만 문화예술이 향유되어 현재 기술력으로는 코로나19 이전 대면 문화예술에 비해 제한적인 체험만 가능함
- ✔ 깊이 있는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 부족과 코로나19 이전 대면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 등의 이유로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된 지원 정책이 다수임
- ✔ 이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접촉의 빈도가 높은 세계화 대신 각 국의 광역단위 내지 기초단위 같은 지역이 주목됨
- ✔ 코로나19로 과속화 되었을 뿐 문화예술 분야에 비대면 기술 접목은 향후 중요한 핵심과제로 작용될 전망이며, 2022년 문체부 예산의 세목별 부분에서도 비대면 관련 지원 정책 찾아볼 수 있음
-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예술가의 경제, 복지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 초기 대응을 넘어 전라북도 예술 기반과 특성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예술 관련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필요성이 있음

4.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수요조사를 위한 FGI 결과

- ✓ 참여 그룹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고 전북에 적합한 정책 도출을 위해 202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고 범주화하여 참여자를 선정함
- ✓ FGI는 전북연구원에서 2021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삼일에 걸쳐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고, 각 그룹별로 3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표1> 전문가 FGI 참석자 명단

FGI 일시	소속	직위	이름*	성별	비고
2021.9.8	A 재단	팀장	A	여	문화예술 지원 재단 출신
	B 문화예술교육기관	대표	B	여	플랫폼 구축
	C 예술가	대표	C	여	
2021.9.9	D 미디어센터	대표	D	남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자
	E 융복합 문화기획	대표	E	남	문화예술 지원 재단 출신
	F 예술가	음악밴드	F	남	소규모 단체
2021.9.10	G 예술가	예술가	G	여	소규모 단체
	H 미디어지원센터	대표	H	남	소규모 단체, 비대면 콘텐츠 제작자
	I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대표	I	남	비대면 콘텐츠 제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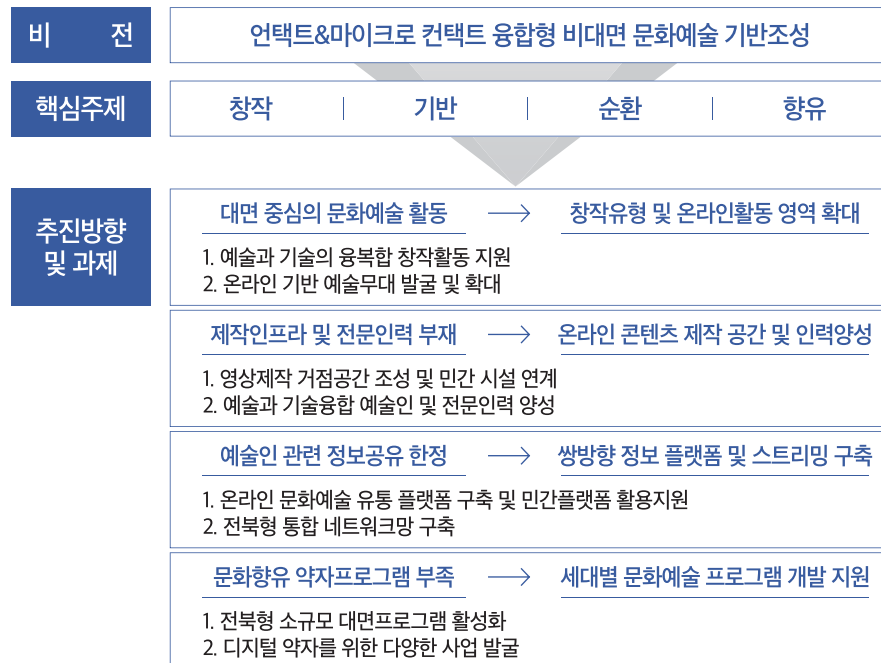
이름* : 소속기관 및 성명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알파벳 처리

- ✓ 주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서 문화예술과 기술을 연계하는 기획자 양성, 비대면 교육 및 제작 장소, 이와 별개로 예술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공공적 차원의 온오프 키트 제작 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예술가들에게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질적으로 수준 높은 비대면 공연과 전시 등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속 기술 또한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문화예술에 접목하는 시도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술가와 기술자를 연계해주는 기획자의 양성이 필요함
- ✓ 공공적 차원에서 지나친 기술 접목 공모비 사업만을 하달하기보다 기술을 통해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현장, 무대, 전시공간 개념)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함
- ✓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작에 관한 교육공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예술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분야 전문인력 지원 및 매칭 사업이 필요함
- ✓ 스트리밍 기반 플랫폼 대신 예술창작, 판매 통로가 가능한 NFT형의 메타버스 구축이 필요하지만 로컬단위에서는 별도 플랫폼의 지속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 언택트 문화예술 시연의 한계에 따라 점차 언택트와 오프라인이 결합된 온택트 형태의 공연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대다수 예술가와 기술가들은 인구 밀집도가 낮은 전라북도의 특성에 기인하여 소규모 대면 모임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세대별로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은 다르게 적용함이 중요함. 10대를 포함 20~30대는 비대면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거나 교육을 받는데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반면 아직 40대 이상은 회의적인 분위기임. 세대별로 받아들이는 속도와 격차가 극심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임
- ✓ 고령층, 장애인 같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기 쉽고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할 필요도 있음. 주로 농어촌 지역과 고령층 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함
- ✓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예술작품의 저작권 같은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비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설공연 지원금은 1회성의 성격이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고 지속적으로 작품이 게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자신의 작품이 무기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 예술가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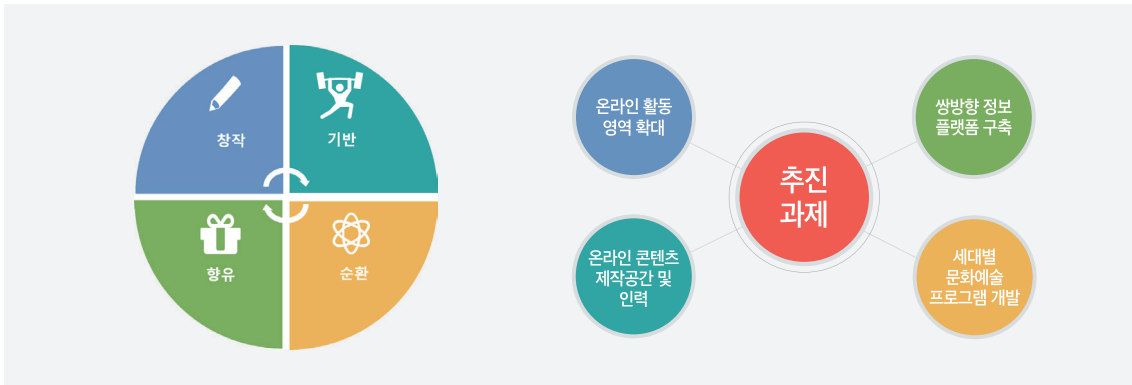
5.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방향

<그림4>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정책 비전 및 전략



- ✔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은 “언택트&마이크로 컨택트 융합형 비대면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창작, 기반구축, 순환, 향유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 비대면 창작활동을 위해 대면활동 중심의 창작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비대면 병행, 온라인 영역의 창작무대 발굴 및 확대를 지원해야 함
- ✔ 비대면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영역의 영상제작 거점공간 조성, 예술과 기술융합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 비대면 순환체계를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구축 및 민간플랫폼 활용 지원 및 전복형 통합 네트워크망을 구축함
- ✔ 비대면 향유확대를 위해 고령인구를 고려하여 소규모 대면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전복 현실에 맞는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의 향유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그림5> 전북 비대면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6.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주요과제

✔ (창작)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창작활동 지원

- 대면과 비대면을 위한 예술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 창작활동 지원
-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뉴미디어아트 지원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마련

- 예술과 기술 융합이 가능한 기획자 대상의 기획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우수작품 지원
- 예술인(단체)의 기술융합 창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작) 생애 최초 영상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예술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
- 예술인의 포트폴리오는 예술품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영상형태로 접근성을 제고

- 시각예술, 공연, 문학 등 장르별 예술인 선정 및 전문기관 매칭
- 신진, 중견, 원로 등 단계별 제작 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DB 구축 및 홍보

✓ (기반) 디지털 창작 스튜디오 조성 · 운영

- 예술환경 변화로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술인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조성
- 다변화하는 뉴미디어 및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창작기반 강화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및 콘텐츠 활용 공간 조성
- 예술인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 교육
- 청소년, 일반인 대상 영상제작 체험 교육

✓ (기반) 예술과 전문기술을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

- 산·학·관·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융합 인재 발굴 계기 마련
- 예술인의 일자리 확대 및 시설보유 기관에 배치 가능

- 도내 대학교, 문화재단, 관련 기업, 문화예술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 이론, 실습, 인턴 등 현장형 인재양성 교육
- 현장실습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

✓ (순환) 온라인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구축 및 민간플랫폼 활용 지원

- 대면중심의 문화예술유통 구조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인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조성
- 창작자와 구매자의 유통구조를 확장하고 문화예술 구매 기회를 용이하게 하여 유통 선순환체계를 마련

-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 시각 및 공연예술분야 작품 선정 및 영상제작, 콘텐츠 유통
- 온라인 갤러리 및 스테이지 운영 기관 연계 및 활용 지원

✓ (순환) 전복형 통합 네트워크망 구축

- 전라북도 문화예술 활동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채널에서 문화예술인과 도민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
-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 제공

- 전북 문화예술 종합 포털 홈페이지 및 앱 개발
- 문화시설 및 단체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운영 프로그램 연동 및 서비스 제공
- 전북 문화예술 분석 및 기초통계 제공, 도민의 참여캠페인 다양한 제공

✓ (향유)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지원 [3인 3색]

-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마을 어르신 및 1인가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지역 활력 제고
- 소규모 마을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및 예술인의 사회적가치 실현 증대

- 농촌마을 어르신 및 1인 가구의 문화예술 향유 수요조사
- 마을마다 3명의 어르신 및 대상 모집
-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사진, 공예 등 청년예술인 3명을 1팀으로 구성
- 3가지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우수 콘텐츠 향유

✓ (향유) 디지털 취약계층 문화향유 상생 프로젝트 '청년 디지털 활용 도우미'

- 온라인 콘텐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적어 지역 간 불균형 발생
- '청년 디지털 활용 도우미'의 마을 배치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온라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 디지털 활용 도우미 선정
- 각 시군별 1명 청년도우미 배치, 마을 순회 디지털 서비스
-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문화예술콘텐츠 향유

✓ (향유) 문화예술교육 키트제작 및 배달 프로젝트

- 문화예술향유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향유 키트 개발·제작 및 배달
- 전북현실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활동영역 확장으로 지역사회 기여

- 지역 및 대상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강사 참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키트 제작
-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키트 배달

< 참고문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2021, 전라북도 공연예술현황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0,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실태조사(202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 『코로나19, 우리들의 이야기』, 문화버리협의회(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코로나19 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 _ 권혁남 발행처 _ 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